제332회국회
(임시회)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0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4월8일(수)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상황 점검 및 관련 업무보고
   가. 국방부
   나.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심사된 안건

1.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상황 점검 및 관련 업무보고 ····· 1
   가. 국방부
   나.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주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20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상황 및 관련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 특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국방부와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일괄하여 현안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예산집행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2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관련 공무원이 대신 자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2개 부처의 차관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오늘 현안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문체부, 기재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군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1.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상황 점검 및 관련 업무보고

가. 국방부

나.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11시06분)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상황 점검 및 관련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국방부 한민구 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준비상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전 세계 군인들이 모여 스포츠경기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군인올림픽입니다.

지난 2011년 5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서울총회에서 한국 개최가 결정된 이후 그동안 국방부는 가장 경제적이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추진

해 왔습니다.

이제 대회 개막일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경상북도와 대회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이 대회 준비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우웅 인사복지실장입니다.

황희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종합적인 대회 준비상황은 황우웅 인사복지실장이, 대회 운영과 관련된 준비상황은 김상기 대회조직위원장이 세부 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한민구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인사복지실장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입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회 개관으로부터 대회 지원, 선수 선발 및 양성, 향후 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는 1948년 2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계 군인들의 우의증진 및 평화유지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의 한국 유치는 2007년도에 국군체육부대 문경 이전이 확정되어 국군체육부대 경기시설을 활용한 국제행사 유치 방안을 모색하면서 추진되었고 2009년 국방부에서 승인하여 2011년 5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서울 총회에서 한국 개최가 결정되었으며 조직위원회는 그 이듬해인 2012년 7월에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대회 준비경과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창립되어 2013년도부터는 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를 재판단하는 등 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작년에는 육군 5종 세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1·2차에 걸친 대회지원위원회를 통하여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 도로 보수 등 대회 관련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회 개요입니다. 대회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경상북도 8개 시·군에서 스포츠를 통한 우정의 한마당 축제가 펼쳐지겠습니다. 참가국은 1차 동의서 접수 결과 83개 국 8634명이 참가를 신청하였으며 북한은 21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대회 지원 분야입니다.

총사업비는 1653억 원과 체육진흥기금 200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수차례의 검증과 기존시설 및 군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 자산 지원으로 인력은 총 소요 대비 60%인 6000여 명을, 차량은 총 소요 대비 20%인 179대를 지원하는 등 최저비용의 국제대회 모델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선수 선발 및 양성입니다.

이번 대회 목표는 역대 최고성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역대 최고성적은 중상위권 수준으로 구기 및 투기 종목에서 강세이나 여자 종목은 열세에 있습니다. 출전 종목은 24개 전 종목에 출전하여 금메달 17~26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수 선발은 1차적으로 남자 16개 종목, 여자 5개 종목을 선발하였고 2차 선발은 올 4월 중에 1차 선발 시 선발하지 못했던 남자 5개 종목과 여자 2개 종목에 대하여 우수선수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훈련은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1단계 체력훈련을 마치고 2단계 경기력 향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장이 완성되는 7월부터는 최대한 홈구장의 이점을 살려 현지적응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경기장 준비는 6월 말까지 완료하고 대회 본부는 7월 1일부로 서울에서 문경으로 이전하여 현장 중심의 대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가국 엔트리는 현재 1차 동의서 접수를 완료하였고 2차 동의서를 접수 중에 있으며 최종 엔트리는 8월 1일부로 확정되겠습니다.

선수촌 건립은 8월 말까지 완료하고 경기진행 및 지원요원에 대한 교육과 종합 예행연습을 통

하여 알차고 멋지게 일류 명품으로 성공적인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직위원장이 대회 운영과 관련된 준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입니다.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대회는 177일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조직위원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음을 말씀드리며 대회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대회 개관입니다.

대회 준비개념은 '알차게·멋지게·일류명품으로' 개최하는 것이며, 알차게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비용의 모델로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대회 총사업비 중 시설비 비중은 11.3% 수준으로 대부분을 기존 시설을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멋지게는 국가적 행사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경기 진행과 함께 참가 국가별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한류문화와 경북도민의 정을 듬뿍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방산수출 증대 및 해외자원협력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인사 대상으로 맞춤형 방산수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대회 준비는 75% 수준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재정 확보 지연으로 경기장과 선수촌 등의 적시적인 사업 추진이 다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대회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경기장 준비개념은 최소비용으로 국제규격에 맞게 준비하는 것으로 지난 1월 국무총리 주관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경기장은 일반종목은 전부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꼭 필요한 시설만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종목 경기장은 19개 중에 6개만 보수하고 군사종목 경기장은 5개 중 3개소만 장애물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장 준비는 6월까지 완료하고 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선수촌 준비는 문경권·영천권·괴산권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9000명 규모의 숙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권 선수촌은 2000명 규모의 숙소를 준비중이고, 이 중 선수단 1500명 숙소는 조립식 건물로 건립 예정으로 현재 선수촌건립승인안이 지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영천권 선수촌은 육군3사관학교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괴산권 선수촌도 학생군사학교 기존 시설을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문경권 선수촌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 협의를 4월 중에 마무리하고 선수촌 건립 및 준비는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폐회식 행사는 국군의 위용과 한류문화를 역동적으로 연출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으며, 대회 개막식은 VIP가, 폐막식은 국방부장관이 주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화봉송 채화지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성이 높은 판문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북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판문점 제한시는 도라전망대, 토함산 등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시 도라전망대와 토함산에서 채화한 후에 합화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선제적인 경호 및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기본개념은 경호안전사령부를 구성하여 범정부 안전대책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토록 하고, 특히 북한선수단 참가에 따른 준비와 IS 테러 위협 대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대회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추진입니다.

대회 홍보는 군과 개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홍보와 대회에 관련하여 직간접 참여를 통한 체험형 홍보 그리고 국민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대중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사업은 목표액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일간지 및 TV를 활용한 홍보는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대회 3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주요현안입니다.

대회 예산집행 제한으로 적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회 재정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진흥기금 200억 원은 선수촌 건립비 등으로 사용이 통제되고, 국비는 수시배정으로 377억 원이 묶여 있으며, 지방비 150억 원과 수익금 114억 원 확보가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기금 200억 원에 대한 용도 전환 사항입니다. 조직위 의견은 국민체육진흥기금 200억 원을 선수촌 건립 그리고 지방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나 문체부는 기금으로는 선수촌 건립비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기금을 선수촌 건립비로 전액 사용하고 지방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체육진흥기금을 선수촌 건립에 100억 원, 지방비로 100억 원을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지방비 미 출연금 150억 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조직위 의견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 5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체육진흥기금 100억 원을 지방비로 전환하여 보충하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요청한 교부금 지원을 검토 중이고, 기재부는 체육진흥기금을 지방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처에서는 특별교부금 50억 원 지원과 기금 100억 원을 지방비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더불어 지방비 문제로 통제된 국비 수시배정 377억 원을 조기에 해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8쪽입니다.

수익금 증액 협조입니다.

대회 수익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4억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옥외광고 수익금이 각각 57억 원씩 적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체육진흥투표 수익금은 조직위에서 132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문체부에서는 수익금 감소 등으로 75억 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수익금은 조직위에서 94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행자부는 정부부처 간 합의 시 증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문체부는 수익금 배분비율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자부에서는 특별교부금 지원과 옥외광고 수익금 증액을, 기재부는 국비 수시배정 해제와 체육진흥기금 100억 원을 지방비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투표권과 옥외광고 수익금 증액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을 선수촌 건립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9쪽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올해 대회를 알차게 준비하고 멋지게 개최해서 국격 제고와 우리 군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상기 조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 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장관님과 조직위원장님, 간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필요하시면 장관님이 답변하시고요, 또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겠다면 조직위원장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요현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런데 이 현안에 올라올 정도면 아직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날짜는 다가오는데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이 사안은 작년 12월 22일 날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되고 예산집행에 대한 협의를 그동안 해 왔는데 양쪽의 입장이 절충되지 않은 선에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황영철 위원 걱정이네요,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될 텐데.

장관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것은 우선 행정부 내에서 원만히 협의가 완료되었어야 하는데 오늘 특위까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조직위원장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부 내에서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 4~5개월밖에 준비 가용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협조를 할 계획이고 잘 타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국회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 인식하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영철 위원 이런 국제행사 준비사항을 보면 늘 조직위와 기재부 또 사업부처인 문체부 이렇게 입장 정리가 잘 안 돼 가지고 매우 중요한 현안들이 늦어지고 이러는 사례들이 많아요. 하여튼 조속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걱정이 많이 되네요.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선수단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 참여를 촉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참여 여부와 관련돼서 논란도 많고 그랬는데 유독 이 군인체육대회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북한선수단에 대해서 특별하게 선수단을 관리하거나 이런 대책들은 있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북한이 군인체육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체육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또 이번 대회에도 참여를 신청한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기준에 따라서 대우를 하고 관리를 하지만 특별히 또 경호·경비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하게 대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지금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초 관계자들이 승산이 보이는 일부 종목만 선수를 파견하려 했지만 김정은이 전 종목에 선수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체육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황영철 위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에 대한 근거가 분명한 근거인지 확인을 안 하셨어요?

조직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이 대회 참여에 대한 것은 1차 엔트리 마감을 작년 10월 1일에 했는데 1차 때 213명, 11개 종목에 참여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2차 엔트리 마감이 4월 15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현재까지 북한이 2차 엔트리에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황영철 위원 아직 없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이 응답이 오면 그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 군인들로 구성된 100명 규모의 군사응원단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나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응원단에 대한 부분도 북측에서 우리 쪽으로 아직 통보된 게 전혀 없습니다.

○황영철 위원 없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황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경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입니다.

이 대회가 2009년 8월에 국방부에서 승인하셨고, 2010년 10월에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유치신청서 제출해서 2011년에 개최가 확정됐는데요.

장관님, 이 과정에서 대회 타당성조사 보고서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장관님 취임 이전의 일이기는 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타당성 보고서를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임수경 위원 확인을 좀 해 보셨으면 싶은데요.

2010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의 관점이 잘못됐습니다. 즉 뭐냐 하면 타당성 분석을 국가적 관점에서 한 게 아니고 사업적 관점에서 했어요. 국가적으로 편익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긍정적 효과로 잡혀서 과장된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니까 최근의 인천아시안게임이나 여러 가지 국제대회가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처음부터, 유치 당시부터 정확하게 타당성조사 분석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국회에서도 2013년에 예산정책처에서 그간의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냈어요. 여기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세계군인체육대회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즉 뭐냐 하면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위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무시하고 재무분석이라는 편법적 방식으로 타당성을 평가했어요.

그리고 유치할 때, 유치 당시에 총사업비 혹시 얼만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568억……

○임수경 위원 538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서에는 보니까 최종적으로 1653억으로 정리가 됐어요, 2013년에는 2056억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사실 이렇게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시작부터 정밀하지 못한 분석과 준비가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직위원장님 보고서에서도 대회가 이제 반년도 안 남았는데 예산 문제 많이, 사실 가장 걱정이지요. 체육진흥기금 용도 전환이나 특별교부금 지원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저는 지금부터 안정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마케팅 사업비, 여기서 수입목표액 104억 원 중에서 29%인 30억 원만 통신 부분에서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다른 은행·물류·의류·급식·경기용구·차량 후원, 현재 진행 중으로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진행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물자 동원해서 예산을 절감하시겠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요, 저는 장관님께 궁금한 게 있어요. 기존의 군생활관, 영천 육군3사, 괴산 학생군사학교 생활관 사용하면 이 기간 중에 여기 이용하는 학생들은 어디로 갑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생활관 활용 중에는 거기 과정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군사교육과 대회가 전혀 지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수경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임수경 위원 군인들이나…… 지금 군 병력 6051명 동원하고 수송차량 동원하고 물자, 특히 PC 같은 경우는 사전에 군 보안이나 이런 문제들 철저하게 점검을 물론 하시겠지만 구체적 계획들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의 평상시 안보태세는 부대 관리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몇천 명 병력이 왔다 갔다 하고 물자가 이동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겠다, 세부계획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경 위원 그리고 준비상황에서 특히 제가 관심 깊게 본 것이 성화봉송 채화지를 판문점으로 하는 안, 도라전망대, 토함산 이렇게 제안하셨는데요, 이게 가능하다면 매우 아주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대회가 될 것 같아요, 올해가 또 분단 70년, 광복 70년이기 때문에. 판문점에서 성화봉송 채화를 한다면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으로서 매우 어떤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감안하셔서……

그런데 걱정되는 게 군인들이 모이는 거잖아

요. 적대국가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사고가 된다면 그 역사성이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하될 수 있겠다…… 혹시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제가 총괄답변을 드리고 몇 가지 사항은 조직위원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 위원님께서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원만한 진행 또 성과 있는 진행 또 그것이 안보와 국방에 전혀 저해되지 않으면서 하도록 세부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 유념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세부적으로 또 필요한 사항은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대표단이 참석하고 또 참석하는 나라 사이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경호경비사령부를 만들어서 아주 각별하게, 최근 또 테러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국외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연습하고 준비해서 대비할 그럴 계획입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케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확정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통신 부분 30억 원이 확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해당 대행사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간의 입장을 좁혀 가고 있는데 그게 조만간에 정리가 되면 곧 마케팅에 큰 차질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장병들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3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마침 BTL로 군간부 숙소하고 병영생활관을 별도로 짓습니다. 그래서 대회기간에 맞춰서 건설주기를 좀 조정해서 우선 선수촌으로 사용한 다음에 분양하는 그런 형태로 정리를 했고, 학생군사학교는 ROTC 후보생들의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훈련일정을 조정해서, 그때 훈련을 조정하면 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군 물자와 장비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전투력 발휘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저희들 고려해서 국방부하고 전투력 발휘에 차질이 없는 수준으로 현재 지원을 받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수경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동원된 기간 중에 그 이후에 어떤, 그 기간 중의 지원이라든지 이후의 포상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임수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주선 임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익 위원 조직위 지금 부족 예산이,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 200억 문제하고 수시배정 문제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조직위원장님?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수익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 수익금하고 스포츠투표권.

○최동익 위원 수익금은 조직위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은 기재부 예산 수시배정 문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200억 배정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는 없냐고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수익금 속에 3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케팅하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하는 옥외광고 수익금을 전체 국제경기 하는 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율 조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체육진흥투표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 수익금을 전체 국제대회에 비율로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확정된 운영비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동익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국회 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그 옥외광고 수익금이라든가 복권기금 나누어 주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면, 도와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을 도와드리면 되는 거예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진흥기금 200억 원에 대한 사용 문제 그것하고, 그다음에 스포츠토토 그다음에 옥외광고 수익금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이 부분만 정리가 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최동익 위원 기재부에서 수시배정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발표하실 때? 수시배정이 늦어져서 문제가 있다면서요, 아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게 지금 왔다 갔다 하시니까……

기재부 과장님 여기 나오셨지요?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 신민식 예, 국방예산과장 나와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수시배정 이 부분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 신민식 지금 현재 수시배정은 지방비 매칭을 확인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서 사실 기재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동익 위원 그런데 국제대회는 원래 국비, 지방비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가 3 대 3 대 4 아닙니까?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 신민식 지금 5 대 3 대 2로……

○최동익 위원 아니 아니, 원래 3 대 3 대 4 아니냐고요. 왜 이것은 5 대 3 대 2로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 신민식 지난번 국회에서 이 예산을 의결할 때 5 대 3 대 2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다음에 이 행사를 개최한 주체가 국방부잖아요.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 신민식 그렇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방부가 나머지, 5 대 3 대 2가 되든 3 대 3 대 4가 되든 국방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자부담 영역으로 넣어 주셔야 되고 오히려 문화부에서의 체육예산을 국비 개념으로 가 줘야 되는데 문경이라는 작은 도시에다가 500억을 부담하게 하고 그다음에 국방부는 오히려 주체적인 입장인데 그것을 국비로 집어넣고 이게 좀 예산의 언밸런스가 생긴 것 같은데, 배치 구조에…… 그러면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 신민식 아닙니다. 국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현재 전체 1650억 사업비 중에 50%는 국비로 지원하고 30%가 문경과 경북, 지방비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조직위의 자체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시배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일단 문경과 경북에 지자체 매칭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저희들이 국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런데 이 대회 자체를 국방부에서 유치한 거지…… 이게 국비·지방비 매칭이라고 할 때는 문경이 나서서 했을 경우에, 아니면 그럴 부분에 있어서 경북이나 문경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지 국방부가 주도하는 군인체육대회 예산을 문경과 경북더러 30%를 책임져라 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한테는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 신민식 이 부분은……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이 대회의 유치는 국방부 단독으로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 문경시에서 최초의 유치 의사가 있어서 함께 이렇게 유치가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최동익 위원 그러면 문경시가 500억을 내겠다고 그때부터 유치가…… 왜냐하면 아까 임수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초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문경시가 그때부터 이미 30% 해서…… 예를 들면 500억 가까운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5 대 3 대 2의 개념은 아마 제가 최초부터 그런 개념으로 하고 처음에는 오백몇십억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것이 중단되면서……

○최동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백몇십억으로 시작할 때 문경의 예산 분담은 15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1600억이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500억 가까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경이 150억 내려고 했을 때 유치를 오케이했지만 조직위에서 예산을 지금 불려 가지고 4배 가까이 는 건데 그러면 문경더러 500억을 부담하라고 하면 350억을 문경이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5 대 3 대 2를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실장님 여기 나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예, 나와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지금 200억이라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문제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예.

○최동익 위원 이미 그 200억이라는 예산 지원은 가능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예, 용도가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용도가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로 지정되어 있으면 내용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방부 쪽이나 조직위 쪽에서 지금 갖고 있는, 확보한 예산에 대한 용도랑 체육기금에 대한 용도를 조정해서 지원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저희로서는 선수촌을 이때까지 계속 지자체가 부담해 왔습니다. 그래서 약속 부분과 원칙 부분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금까지 350억을 부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항목 조정을 해서 그 350억을 가지고 선수촌 지은 걸로 처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자체 예산 100억을 빼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문화부의 기금예산 100억을 운영비로 돌리고 하면서 그런 협의가 가능한데 왜 그 예산항목 변경을 통해서 해 주시든가 해야지, 그것을 문경시가 실질적으로 150억 부담하는 개념에서 시작한 것을 문경시더러 500억을 내라고 하면서 문경시에다 계속 압박을 하면, 지금 대회가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미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항목을 잘 조정해 가지고 활용해서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확보된 예산이 항목이 안 맞는다고 서로 이렇게 나가면 이러다가 문경시가 파산이 난다거나……

문경시는 나름대로 150억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350억까지 부담을 했으면 지자체는 나름대로 충분한 저것을 한 거고 조직위 쪽이나 국방부 쪽에서 예산이 잘못, 예타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500억대에서 시작했다가 이게 1600억 가까이 4배로 는 데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것을 지자체가 그 500억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뜩이나 150억에서 350억으로 200억을 더 낸 건데 150억을 안 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항목 가지고 계속 문화부나 기재부가 이렇게 한다면 대회를 어떻게 치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그런 예산항목 변경을 통해서 기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아 주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저희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문경시에서 이미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제체육대회에서 체육기금을 지원한 선례가 없습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위원 뭐라고요? 뭘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한 예가 없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선수촌은 지자체가 하는 것으로 원칙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경시가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최동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운영비 예산을 조정해 주시고 지자체가 그동안 쓴 돈의, 비용을 돌리든가 해서 항목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이지 이것을 불법으로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문경시가 처음부터, 2010년부터 이것을 500억을 부담하겠다고 하고 시작한 거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저희가 문경시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다만 2010년도에 문경시가 선수촌을 건립하는 것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동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350억에서 그것을 예산항목을 돌려서 처리하라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문경시가 처음부터 500억을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문경시는 150억, 30%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 것을 그것을 30%라는 것으로 해서 500억을 부담하라고 하면

문경시 같은 인구도 작은 지자체가 어떻게 부담하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 확보된 예산항목을 조정해서 이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얘기이지 선수촌 예산 불가능한 것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방비로 돌리는 것, 불가능한 것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항목을 조정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문경시에다가, 150억 부담하기로 한 데에다가 500억 부담하라는 이런 강요를 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지자체가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150억 부담하기로 한 것을 500억을 부담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문경시 땅을 옆의 다른 시·군에다 팔란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래라저래라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대회를 현실적으로 잘 치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는 예산항목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면 문화부에서 200억 지원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요. 제가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선 위원 강원도 원주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대회가 이제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도 부처 간의 이견으로 또 기관 간의 이견으로 이게 집행이 못 되어 가지고 걱정을 끼치게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 그다음에 지자체, 기재부, 문체부가 전부 이것을 용도와 관련해 가지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기 지원위원장이 총리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기선 위원 총리께서 나서 가지고 이 부분을 권한을 가지고 하시면……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 총리께서 하시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실적으로 이 지원 문제는 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부처 간 협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해서 해결할 방법입니다.

○김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에도 지자체, 조직위원회, 관계 부처의 예산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총리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께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촌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확정이 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처음 보는 형식이네요. 보니까 캐러밴(caravan) 생산업체로부터 이동식 컨테이너 약 350개를 임시로 설치해 가지고 선수촌 숙소로 사용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100억이 캐러밴 형태의 이동식 컨테이너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게 100억이 들어갑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김기선 위원 현실적으로 이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원래 선수촌 건립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러저러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나 여건이 안 되니까 여태껏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없이 있다가 이제 도저히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대체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9000명 중에 1500명만 조립식으로 수용하고 나머지는 기존 시설로 가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랬을 경우에 선수촌으로서 활용하고 운영하는 데…… 처음 보는 방식이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아마 세계 유례가 없을 것 같은데, 충분히 선수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그 부분은 설계 내용을 CISM에,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에 선수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현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억은 이동식 컨테이너 캐러밴식으로 선수촌 건립하는 데 들어가고 100억은 지방비로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지방비로……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정확하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체육진흥기금 200억 원이 추가로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에 대해서 지방비의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방비를 보조한다는 차원으로……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로 보조를 해서 문경이나 경북도가 이 대회를 지방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 쓰겠다 그 얘기입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거기서 충당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조직위가 불과 3개월 채 안 남겨 놓고 난 7월에 현장으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차질 없습니까? 예를 들면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조직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현장인 평창에다가 조직위원회 본부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남겨 놓고 이전한다고 하는 것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선택인지 좀 궁금한데 그렇습니까? 지장이 없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신축공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영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사업이 3개월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김기선 위원 저기, 조직위원장님, 지금 노파심으로 하나 드리는 말씀인데 시설 점검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운영 전반에 대한 차질 없는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그 분야가 훨씬 더……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제반 통신 문제 등등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준비기간도 길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국방부가 알아서 잘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7월에 와도 전혀 관계없다, 좋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저희 조직위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정한지 체크는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께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운영을 위해서 조직위의 현지 전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위가 대부분 군인 출신들이 많은데 작전의 차원에서, 그 개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대비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안전·경호기구를 편성했다고 해서 안전대책위원회가 1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인천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앞으로 치러질 이런 대회가 안전하게 치러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관심사항일 텐데요.

18개 기관이, 이게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박근혜정부에서 세월호 이후에 국가의 안전이 중요하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장관급으로 국민안전처를 만들어서 조직을 재편했는데요. 여기 안전대책위원회가 여전히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이게 14년 5월 1일에 실무협의회가 만들어져서 그때 기관……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관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지금 오늘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거면 변경된 국가의 기관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변경을 시켜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김현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안전처를 그냥 허울 좋은 국민안전처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면 사실은 안전대책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파

트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총리가 조직위원회 방문하셨지요? 현장에 가셨지요, 3월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총리님은 안……

○김현 위원 정홍원 총리 혹시 가지 않았습니까? 1월에 갔었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아, 지원위원회를 했습니다.

○김현 위원 예, 준비상황을 점검했는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안행부 3급, 안행부 4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소한 것 같지만 부처에서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지, 협력하고 있는지 공동으로 이것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제 개편도 여전히 안행부로 되어 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전에도, 세월호 터졌을 때도 안행부장관이 컨트롤 타워인데 나중에 무슨 또 재해대책본부가 해수부라고 그래서 해수부에 갔다가 또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총리가 직접 했다가 다시 안행부로 갔다가 이런 혼전과 혼선이 거듭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체계를 만들 때 현재에 반영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허술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조직위원회 이 법도 마찬가지로 안행부장관이 들어가 있는데 국민안전처장관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21조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 보면 이게 2014년 11월 19일에 개정했는데 여기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 부처가 만들어진 게 11월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북한 군인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추측 보도, 특히 '자유방송'인가 하는 데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런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이면 사실관계인 거고 사실관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방송 보도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메일이나 공문이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이 나오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편성에 따르면 미디어홍보부가, 문체부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이 이 작업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지금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북한 군인이 대회에 참석하는 형태로 오는 거고 특히 국방부랑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국정원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보도가 성급한 보도거나 아니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서 경색된 국면을 더욱 경색되지 않게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마찬가지로 국방부장관님에게도 특히 주적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현 위원 그러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 대회는 잘 치러야 되는 거고 또 주적 개념이 있는 거고 그사이에서 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국방부에 계신 분들이 표현함에 있어서 성급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참여하기로 했다가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북한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참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 차원에서 와서 참석하고 또 그런 것들이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 위원 그러니까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언론 보도에 이미, 국방부는 아니지만 하여간 조직위에 파견 나가 있는 분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조금 지나치게 추측성 발언이

나가 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울산 북구 새누리당 박대동입니다.

먼저 장관님, 북한 선수들 213명이 오는 걸로 되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관심을 보입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현황하에서 더더욱 군인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특히 IS 테러 가능성은 항상 전 세계적으로 열려 있는 것인 만큼 이번 이 대회의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까지 안전한 대회가 되게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필요한 사전 대응이나 만에 하나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그 점을 꼭 장관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특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휘부가 7월달에 가니까 일반적인 상황하고 달라서, 또 이러한 민감한 현안까지 있는 상황하에서는 그때 가서 좀 늦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어서 가시기 전이라도 제대로 이게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사전적으로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도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 조직위원장님 마찬가지시고요.

문경 당해 지역에서 한 500억까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숙소 같은 것도 다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지역에 남는 것이 뭐냐 하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경제적인 군인올림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은 재정 지원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체육진흥기금의 사용과 관련해서 각 부처 의견들이 다르고 뭔가 매끄럽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문경시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습니까?

아까 관계부처 관계관들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게 저도 공직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행정 난맥상의 한 부분을 보는 것 같다, 각 소관되는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안들을 자체적으로 안에서 조율해야 할 사안을, 마치 우리 집에서 말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못 해서 옆집에 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행정부 자체 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국회로 가져오는 것은 국회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 사안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국회가 특별히 해야 될 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산과 관련한 정부 내의 문제는 위원님 지적을 제가 아주 송구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협조를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리님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재부 의견 다르고 문체부 의견 다르고 조직위 의견 다르고 문경시 지자체 의견이 다르고 그러하면 이것을 총리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관장하시는 위원장님이시니까 총리께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사전에 관계부처장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조율하시든지 해서 우선 행정부 자체 내에서 이것을 풀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뭔가 걸림돌이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국회에서 특별히 도와 드릴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늦기 전에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노력을, 제가 느끼는 것은 그전부터 이것을 계획을 세울 때부터 좀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안 했고 실제로 여건이 어떤지를 안 봤다 하는 그런 데서 현실에 와서 불거진 사안 같은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조정할지를 한번 논의하셔서 가급적 거기 안에서 잘 풀어 주시고 저희가 꼭 도와 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회가 되도록 특별히 기대하고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

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잘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께서 안전한 대회, 성공적인 대회 또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박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성 위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가 치러지는 문경 출신 이한성 위원입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서 김상기 조직위원장님과 이황규 총장님을 비롯한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또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 해 주시는 한민구 국방부장관님과 국방부 간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깊은 우려와 함께 성원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대동 위원님 지적대로 기재부에서는 기금 200억에 대해서 선수촌으로 쓸 수 있다 그랬고 문체부에서는 이것을 쓸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이게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벌써 한 20일 넘게 제가 국무총리실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국회까지 왔는데도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대회가 얼마 남았습니까? 한 5개월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5개월 반 좀 넘는가, 6개월은 채 안 남았을 겁니다. 선수촌은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대단히 참 우려스럽고 부처 간의 이기주의니 뭐니 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문체부하고 어떻게 해석이 다릅니까, 이게? 참 대단히 딱한 노릇이고 정부가 이래서 되는 문제인지, 전 세계 110개 군인선수들을 초청해 놓고, 특히 북한 선수들이 온다는 마당에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져 가지고 시간만 보내고 선수촌은 건립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선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고 뒤에 제가 기재부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대답을 한번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대회를 위해서 이한성 위원님께서 참 아주 오랜 기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두어 차례 정부 내에서 해결할 문제를 국회에까지 이렇게 오늘 와서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총리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결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기재부의 국장님 와 계십니까?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 신민식 국방예산과장 나와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국방예산과장님, 신임 과장님이구나. 발언대에 서시지요.

이 기금 200억 해석이 맞는데 문체부가 설득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 신민식 지금 일단 자료에는 기금 200억 중 100억을 선수촌 건립에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 기재부는 선수촌을 건립해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문화부에서는 이 부분은 운영비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수촌 건립에 사용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지금 조직위하고 문화부하고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지방비 전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경시나 경북도가 자체……

○이한성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지방비 분담을 논의하기로 하고요.

100억이 이렇게 해석이 분분해 가지고 지금 선수촌이 못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 줘야지 서로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 신민식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지금 조직위원회는 체육기금 200억 중에 100억으로 꼭 선수촌을 지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한성 위원 그런 입장이지요, 지금.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 신민식 문화부는 선수촌 건립은 안 된다는 입장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역을 조정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조직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안 들어왔는데 같이 머리를 대고 한번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정말 참 딱하네요.

그러면 우선 뒤에 앉으세요.

문체부는 담당자 누가 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체육관광정책실장입니다.

○이한성 위원 예? 실장님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김재원입니다.

○이한성 위원 김재원 실장님, 이것을 왜 이렇게 해결을 안 해 주고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기금을 안 내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경시가 2010년에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약속과 또 그간에 저희가 숱한 국제스포츠대회를 치러 왔지만 선수촌 부분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한 전례가 없고 이런 전례가 다시 향후에 생길 이런저런 국제행사에 악영향을 미칠까 하는 두려움이 저희가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지금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재부 국방과장이 타당,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예, 기재부가 동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한성 위원 동의하는데 왜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방해를 합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저희는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한성 위원 돈을 왜 안 줍니까, 그러면? 돈을 왜 안 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약속과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한성 위원 그런데 사실은 군인체육대회 이게 선수 규모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할 수가 없어졌어요, 지금요. 선수 규모가 당초에 한 8800명에서 한 만 명 넘게 됐는데 한 1500명 분은 불가피하게 군사작전 개념을 쓰더라도 수용은 해야 됩니다. 오는 손님 어떻게 가라고 하겠습니까? 기재부는 된다는데, 기재부도 다 판단을 해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기재부는 기재부의 판단이 있고 저희는 저희 부의 판단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한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와서 한번 봅시다. 일이 제대로 되는가 한번 봅시다.

들어가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듣기 싫어요. 들어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이 문제는 문체부는 관례상 또 다른 것이 있을까봐 저런 걱정을 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대안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대안은 있는데 지금 6개월도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하여튼 제가 조만간 해결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시간을 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주선 이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지금 5개월뿐이 안 남았으면 대회 돌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부처 간에 이런 벽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5개월이면 이제 여러 가지 스탠바이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예산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각 부처,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는 겁니까?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분쟁까지도 가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지금 다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선수촌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공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자꾸 지연이 되니까 현재 문제입니

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여기 문경이나 경북도에서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지요?

지금 경북하고 문경하고 이 조직위의 관계는 원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마스코트나 엠블럼에 갈등이 좀 있었고 지금 선수촌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국방부장관님, 실제적으로 국방부의 목표가 뭡니까? 이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국방부의 목표 지점이 뭐가 있지요, 목적 지점이?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인체육대회를 통해서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지향하는 군인들 간의 친목·유대 또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또 지역적으로는 문경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한국군의 군인체육 발전도 기여한다, 이런 기폭제가 되도록 한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것이 군인 외에 국가적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TV 중계됩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됩니다.

○염동열 위원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염동열 위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실제로 TV 중계가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세계인의 주목이 된다고 봐야 돼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게 1600억 정도 예산이 많이 증가됐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많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TV 중계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장관님,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뛰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문경시, 잠깐 일어나시지요.

경북이나 문경의 목표는 뭡니까, 목표 지점은? 이것을 통해서 지역발전, 또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경북, 계시지요?

이것을 공동으로 유치할 때 어떤 목적 지점을 갖고 이것을 유치했습니까?

○경상북도세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이경곤 경상북도군인체육대회추진단장 이경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군의 위상과 국격을 제고하고 또 저희 도의 좋은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유치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우리 문경시도 그렇지요?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목적도 있으시지요, 국가적인 목표도 있으시고?

○문경시대회기획팀장 송기태 경상북도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염동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방부나 우리 경북이나 문경시나 문체부나 기재부나 전부 다 대한민국 속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니 이 군인체육대회가 세계적으로 군인들의 사기앙양 또 한국 국방력의 세계적인 과시 또 여러 가지 국가 인지도·신뢰도를 높인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런 갈등에 있어서 이제는 덮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국방부장관님, 물론 총리께서 이것을 총괄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국방부장관님이 총괄해서 사방 뛰셔야 될 것 같아요. 조정하시고 양보할 것 양보하고 서로가……

아까 문체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선례를 남기기 어려우면 다른 항목으로 한다거나 실제로 선례를 안 남기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하세요.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선수촌을 지방에 하는 것을 문체부에서 해 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소통하세요. 경북, 문경시 또 우리 조직위 또 우리 장관님도, 우리 문체부도 함께, 기재부도 함께 만나세요. 꼭 이것을 총리한테, 결단을 내려서 결정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먼저 스스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고 이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목표와 또 국가적 위상 또 군인대회의 위상을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연대 부가가치로 문경시나 경북도의 문화관광상품을 팔고 또 방산 수출 계획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산 수출 홍보도 갖고 가시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염동열 위원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북한 선수들이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계 군인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평화모드의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어

간다든가 국민들 모습에 비춰졌을 때 북한 선수들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디테일한 전략은 혹시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아,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염동열 위원 그래서 국한시켜서 단순히 북한 선수들을 선수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화 무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만들어 내거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남북의 평화 무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후 위원 원주을 이강후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오늘 제가 왔을 때는 우리 군인체육대회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를 보고하는 줄 알았단 말이지요. 딱 보니까 이게, 저도 공직에서 한 30년 이상 있었는데 모든 게 예산으로 귀결되는데 또 예산에서 문제가 된단 말이지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국회에 와서 좀 해결해 주십사, '국회의원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를 보고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1653억이 들고 그것에 플러스해서 체육진흥기금 해 가지고 200억 해서 모두 1853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를 보니까 지금 177일 남았다고 보고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만약 해결이 안 되면 올림픽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개최가 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해결할 것입니다.

○이강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료라든가 기관 간의 난맥상을 보는 것 같아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각 기관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돈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죽었다 깨도 못 한단 말이지요, 나중에 책임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천생 총리까지……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총리까지 갈 필요 없이 밑에서 해결하는데, 총리가 개입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으니까 해결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문경 출신 이한성 위원님이 얼마나 딱하면 이렇게 점잖은 분이 큰소리를 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IS 테러가 되고 있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안전이 굉장히 주요한 이슈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안전은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장관님이라든가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안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제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또 우리나라의 그런 일반적인 안전의 수준 또 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이런 것들을 보면 안전 문제가 이상 없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이보다도 더 큰 행사들도 우리가 다 이상 없이 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군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강후 위원 그런데 또 북한 측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 10월 달에 참가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11개 종목에 213명 선수를 파견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이강후 위원 그리고 북한대표단과 플러스해서 여군응원단이 100여 명이 올 거라고,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그것도?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추정된 이야기입니다. 현재로서 저희들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강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남북이 굉장히 경색된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 와 가지고 남북의 경색된 게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아까 보니까 성화 봉송 있잖아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이강후 위원 보니까 1안, 2안, 3안인데 이왕이면 좀 세게 하셔 가지고 백두산하고 한라산에서 채화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합하는, 좀 스케일을 크게 하시지 뭐 도라산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세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분단의 상황을 세계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이 판문점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강후 위원 글쎄, 판문점도 좋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백두산 또 남쪽에서는 한라산 이래 가지고 되든 안 되든 좀 세게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애기를 해야지 도라산, 판문점 그것보다는…… 상징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게 177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충분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하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홍보가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세계적인 축제가 됐으면 하고요.

또 지역에서도 문경이라든가 경북지역에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겠어요? 서로 돈 안 주기 위해서, 예산을 안 주기 위해서 서로 싸운다면 일반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방송을 국민들이 봤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특히 국방부장관님, 그래도 국무위원이시니까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권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힘을 좀 발휘하셔 가지고 이 문제가 잘,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잘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강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구을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 4월 1일 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같이 우리 이한성 위원님이랑 대회조직위를 방문했었지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보고도 듣고 또 우리 국방부장관님도 나오셔서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대회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잘 들었는데 오늘 역시 예산 문제 갖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고 답답한 상황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들도 크게 볼 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경세계군인선수권대회가 아시안게임 그다음에 올해 열리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그다음에 크게는 평창 이렇게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문경군인선수권대회가 군인대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에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4개 대회' 이렇게까지 자리잡고 있지 못한 점에서 오히려 예산 문제 같은 것도 좀 안 풀린 면이 있다, 그래서 이 대회의 취지나 의미 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 또는 국민 속에서 어떻게 잘 홍보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도 오히려 더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묻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회를 보고받으면 받을수록 이 대회가 매력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군인선수권대회라고 해서 한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선수들은 한정적이지만 그 대회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군인들만의 수준을 넘어서 전 국민적인, 특히 북한선수단의 참여라는 매력적인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경색적인 국면을 풀고 좀 더 평화와 협력적인 면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의 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 특위 차원에서 공감을 갖고 홍보도 할 겸 해서 이 자리를 만든 거고요. 그것이 국민적으로 잘 홍보됐을 때 이런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해법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유치되고 나서 아마 예산을 대회조직위가 처음에, 보통 국제대회 잡을 때 예산을 정확하게 잘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추후에 대회 규모의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거나 이런 식의 형태들을 많이 취하는 과정들을 여기도 조금 반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또 당장 집행 재원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조직위의 요청에 대해서 기재부와 문체부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도 듣고 자료도 받

아 봤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큰 틀에서 우리 국방부장관님도 자신감을 갖고 답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저희들도 도와서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처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문위원을 해 봐서 또 체육대회를, 아시안게임을 치러 봐서 아마 문체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용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부처 간에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조직위원장님, 삼자 간에 같이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기재부, 문체부 같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조직위하고 삼자가 만나서 한 것은 이한성 의원실에서 한 번 토의를 했고 나머지는 조직위하고 기재부 또 조직위하고 문체부 이렇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윤관석 위원 기재부는 나오셔서 아까 답변을 했는데 일단은 문체부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같이 의논해서 해결할 의지는 갖고 계신 거지요?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 신민식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예, 위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꼭 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문체부 과장님 나오셨는데 아까 그런 원칙적 입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실무자의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떻든 위에 보고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대회 유치해 놓고 지금 숙소 해결 없이 치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나오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숙소 없이 치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어떤 형태로든 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이런 국제대회 앞두고 예산 막판에 여러 가지 복잡해서, 항상 부처 간에 입장이 있고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난항을 거듭하여 또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전향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행정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8 페이지 보니까 수익금에 있어서 체육진흥투표권과 옥외광고 문제 나와 있는데 옥외광고는 안행부에서 조정해 준 것 아닌가요? 거기서 더 추가로 요청하는 건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최초에 할당된 것에서 증액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윤관석 위원 37억에서 57억을 더 해 달라는 거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비율 조정은 끝났는데 추가 요청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안행부하고 협의했습니까, 그래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그래서 안행부 입장은 안행부에서 옥외광고 수익금을 전체 종합해서 각 부처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할당되어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비율을 조정해서 안행부에 알려 주면 안행부에서 조정을 해 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윤관석 위원 이것은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할 테니까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각각의 칸막이를 놓고 보면 답답한데 이것을 우리가 대회의 큰 취지 또 이 대회가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성공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해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갔을 때도 얘기했는데 언론대책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군인세계체육대회가 국민 속의 체육대회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예산도 풀린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언론 홍보를 여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사전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강후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지난번에 정의화 의장도 얘기하셨는데 성화 봉송에 있어서의 남북관계를 관통하는 어떤 육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는 선수단의 육로 참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좀 더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국방부장관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윤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또 격려 말씀 또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좀 더 이것이 국민적인 성원 또 호응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위와 국방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 위원 조직위 위원장님, 자원봉사 모집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2월 달까지 원래 계획이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2월 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8개 지자체에서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하는 지역 때문에. 그래서 일부 지역은 다 완료돼서 선발이 됐고 아직 미비한 지역이 2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김현 위원 어느 지역이 미비한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상주하고 포항 두 군데인데 전번 지자체하고 합동회의를 할 때 상주하고 포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조기 완료가, 이미 완료가 됐어야 되고 5월 달부터 이들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게 계획 실행목표인데 지금 대회를 치르는 두 군데서, 그러니까 상주하고 포항에서 협조가 안 되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조직위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건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했고 4월 15일까지 완성을 해서 종합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현 위원 지금 자원봉사 주 대상이 민간인인거지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국방부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협력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물론 민간인이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군 행사라는, 군인들이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직 군인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검토가 안 되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 현재 그 해당 경북지역에는 1개 사단과 몇 개의 부대가 있는데 그들의 기본적인 작전 임무가 있기 때문에 군 병력을 자원봉사로 차출하는 것은 좀 제한이 되고 아까 한 6000명 이상의 군 인력이 거기 지원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력지원은 인력지원 별도로 군 인력하면서 자원봉사에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직위에 더 협조를 하고 또 해당 지역에 있는 여러 부대장들을 통해서 지자체장과 협조를 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김현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여느 행사랑은 좀 다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인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게 대부분 민간 행사지요. 국민 행사거나 이런 건데, 특수한 대회이니만큼 국방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현직이 아니더라도 그런 군대의 문화에 좀 익숙하고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군 출신들이 제일 합당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현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느 대회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가 아니고 군대의 문화나 아니면 군대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자원봉사로 들어가는 것이 대회를 원만하게 치르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우리 염동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염동열 위원 남북한에 대해서 말씀 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북한선수단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북이 많이 교류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에 따라서 획기적인 이 대회의 킬러 포인트(killer point)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강후 위원님이나 윤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화봉송 그리고 국내 북한 선수들 경기장면에 대한 방송채널에 대한 편성 또 우리 서포터즈들이 북한 선수를 응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 미묘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특히 북한 선수들이 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국방부 또 군인으로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을 평화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역학적으로, 심층적으로 굉장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회기간 동안에 하는 것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장관님,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별팀을 구성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떠 보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군인들이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각, 여러 가지 이런 역학관계를 잘 따져서 평화모드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북한군 참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깊이 있게 현재 있는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다양하게 한번…… 사실 우리 세대만 해도 북한군 머리에 뿔 난 줄 이렇게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군인을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깊게 넓게 심층적으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봅니다.

○염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기 조직위원장님께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선수촌 건립비용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100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100억 원인데……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전체는 160억인데 60억은 문경시에서 염출을 해서 충당하고 100억 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선수촌 건립비용을 체육진흥기금에서 200억 원을 지원받기로 정부와 합의가 된 겁니까, 문체부와 합의가 된 겁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선수촌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위원장 박주선 운영비 지원을 하기로 한 겁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선수촌 건립비용으로 100억을 전용을 하면 운영비 충당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지금 저희들 총 소요사업 예산이 1653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 외에 200억 원이 체육진흥기금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의 재정여건이 원체 나쁘기 때문에 지방비 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로 200억 원을 추가로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중에서 100억 원을 선수촌 건립비용으로 전용을 해서 쓰겠다, 나머지 63억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충당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100억은 운영비나 무슨 건립비나 포함해 가지고, 지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충당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우리 문체부 김재원 실장!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선 원래 체육기금 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용도는 뭐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명목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운영비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예.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지금 지방비로는 전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안 된다는 입장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그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재정부 원칙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아니, 기금으로 선수촌 건립비용 사용을 불가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선수촌 건립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지방비로는 전용하자는 그런 입장이냐, 문체부 입장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문체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지방비 전용도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예.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아까 답변할 때 전례가 없기 때문에 문체부로서는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거법령상 불가능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단순히 전례가 없을 뿐더러 문경시에서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는 약속과 신뢰를……

○위원장 박주선 글쎄, 약속을 누가 파기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사정의 변경이 있고 실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령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전례가 없던 것은 만들면 된다고, 이게 합리적인 내용이고 필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행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법령도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법령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식 반대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관광정책실장 김재원 법령 위반이 아니라면 방법은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다음에 기재부 신민식 과장 나오셨지요? 지금 선수촌 건립비용으로 전액 사용을 하되 지방비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지요?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 신민식 선수촌 건축비로 전액 사용을 하건 또는 100억만 사용하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런데 지방비로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 신민식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로 전환하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기재부의 입장은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 감사원의 감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많은 사업에 있어서 지방비 매칭 이전에 국고를 먼저 집행해 달라는 요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재부보다는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부처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 가지고 하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법령상 선수촌 건립비로 전액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금을 지방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 신민식 그 부분을 감사원이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보조금법에 지자체 보조금은 비율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근거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 기재부 입장에서는 법령상 근거로서는 선수촌 건립에 전액 사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전연 없고, 그다음에 지방비 전환도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법령상으로는?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 신민식 법률적인 내용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검토는 법률상으로도 이 부분이 기존에 보조금법에 나와 있는 것에……

○위원장 박주선 그 법령의 규정도 훈시적인 규

정이 있고 강행규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한 검토가 없이 국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법령에 근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대회 운영 준비를 위해서는 개정을 해서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합리적이라 한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 신민식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대상은 사실 기획재정부보다 집행해야 되는 국방부기 때문에 국방부가 사실……

○위원장 박주선 지금 이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2차관이 오늘 긴급한 예산편성 작업 때문에 참석을 못 한다고 양해를 구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문제는 문체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해 가지고 문경군인체육대회가 절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가 없어 가지고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법령 근거 개정을 빨리 주도를 하고, 법령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방치를 하고 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어요?

○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 신민식 예, 취지를 알고 저희들이 그 취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리고 모든 부처는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또 조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국제경기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개최가 되는데,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은 선례고 전례고 다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공적인 개최가 당면한 당위 과제기 때문에 그 점에 목표를 좀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방부장관께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휴전선이 그어져 가지고 정전협정이 발효된 상태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현역 북한군이 지금 대한민국에 온 일이 있었습니까, 현역 군인의 자격으로?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역 군인의 자격으로 회담에 참석한다든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것은 북한군 지휘부의 일원으로서, 회담 요원으로서 왔지만 대거 213명이라는 군인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최초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렇다면 이번 이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가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단이 올 때에도 기왕이면 휴전선을 넘어서 육로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성화 채취를 판문점에서 하는데 판문점에서 하는 데에도 유엔사 동의는 받아야겠지만 북한군 동의가 필요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판문점 남측에서만 한다는 것은 유엔사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북한군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또 통일부를 통해 가지고 검토를 시켜 가지고 북한에 제의할 것처럼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디서 성화를 채화할 계획입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사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통보를 하니까 유엔사에서는 판문점 지역에 성화 채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승인을 받아야 자기네들이 승인을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통일부를 통해서……

○위원장 박주선 아니,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비무장지대, 휴전선 이남에 있는 판문점에서 채취를 하더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북한군 동의가 필요합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예.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그것 국방부장관님하고 말씀이 다르네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마도 유엔사 측에서 거기가 좀 민감 지역이니까 혹시라도 그 채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북한군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아마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사실상 동의가 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취지지 정전협정상 꼭 북한군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닐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오히려 판문점에서 채취하는 것보다는 아까 이강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백두산이나 다시 말하면 북한 땅에서, 현재 사실상 북한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그 땅에서 채취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일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뭐 그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백두산·한라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중히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주선 문경권하고 영천권하고 괴산권으로 나눠서 군인체육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해군 5종 경기라는 것이 바다나 강이 없이도 치러지는 경기입니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해군 5종 경기는 바다 종목이 있습니다. 선박조정 항목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해군 5종 경기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아니, 여기 보고서에는 문경권·영천권·괴산권으로만 되어 있지 포항권은 없는데?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 선수촌이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에 선수촌을 두고, 포항에서 경기를 하는 팀들은 영천에 선수촌을 마련해서 수용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경기 장소는 포항도 포함이 되어 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용도 전환, 체육기금과 옥외광고 수익금 증액 등 대회 예산집행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하고는 조속한 해결,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참석 여부 및 안전대책, 성화봉송 채화지의 상징성 제고, 국방부와 조직위 및 문경시의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구축 등 많은 지적과 조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국방부장관 및 대회조직위원장 등 관계자 모든 분에게 우리 특별위원회의 지적과 조언을 유념하여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015년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가 단순히 군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함께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국회의 특위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의 애로와 건의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서면질의를 또 하셨어, 염동열 위원 아까 또 보충질의 시간까지 1분 달라는 것을 3분이나 줬는데?

○염동열 위원 그러면 빼세요.

○위원장 박주선 윤호중 위원 서면질의……

○윤관석 위원 윤호중 위원은 질의시간이 안 돼 가지고 서면질의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그러면 윤호중 위원, 윤관석 위원 두 분이 지금 서면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서면질의도 속기록에 게재가 되는 질의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김기선	김 현	박대동	박주선
염동열	윤관석	윤호중	이강후
이에리사	이재영	이한성	임수경
최동익	황영철		

○청가 위원(2인)

박혜자 안민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 재 룡
전문위원	박 기 영
전문위원	이 정 화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	한 민 구
기획조정실장	황 희 종
인사복지실장	황 우 웅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장	신 민 식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장	김 재 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위 원 장	김 상 기
사 무 총 장	이 황 규
경상북도세계군인 체육대회추진단장	이 경 곤
문경시대회기획팀장	송 기 태